

얼 마 전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 하지 않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장을 찾으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들이 다시금 뜨겁게 안아본것은 인민에게 바치는 그의 뜨거운 헌신의 세계이다.

언제인가 낫은비 내리는 먼길을 달려 동해의 포구를 찾았으니 어깨가 무겁도록 찬물이 내리쬐었던 날에는 삼지연군(당시) 건설장을 견고결연시던 원수님, 삼복철무더위에 옷자락을 땀으로 화려 장식며 온실을 찾으시고 농장길을 걷고 또 걸으신 사언이며 비를에 진창이 된 건설장을 돌아보시던 이야기, 인민들에게 가담을 물고기 대공을 안아온것이 그리도 만족하시어 평범한 바다가 너인들에게 허리곱혀 안아주시고 차디찬 물고기행동 불로라도 귀한 보석을 대하 할 쓸어내리보시던 잊지 못할 화곡...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

세상사람들은 공화국을 가려져 인민의 나라라고 한다. 인민의 국가인민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부복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국가기때문이다.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이다.

오늘 공화국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정치리념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그의 정치는 철두철미 인민을 존엄하고 행복을 인민으로 되게 하기 위한것이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신성시하시고 가장 숭상하는 스승으로 여기신다. 하기에 언제나 금검체육 인종합식교공장을 찾으시었

애국과 품모

겨절줄 모르는 불빛

금의 제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이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라고 사랑님께 말씀을 하시었다.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후추순처럼 일떠서는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신화적인 개발속도로 행성을 진감한 주체방위들의 성공적, 자랑스러운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역사는 바로 화락 조지며 온실을 찾으시고 농장길을 걷고 또 걸으신 사언이며 비를에 진창이 된 건설장을 돌아보시던 이야기, 인민들에게 가담을 물고기 대공을 안아온것이 그리도 만족하시어 평범한 바다가 너인들에게 허리곱혀 안아주시고 차디찬 물고기행동 불로라도 귀한 보석을 대하 할 쓸어내리보시던 잊지 못할 화곡...

그날은 그이께서 금야강 2호발전소를 찾으신 날이었다.

인민들에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언제나 시선을 없으시며 저기로 올라가 보자고 말씀하시었다. 그

을 때에는 이 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을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민들이 좋아하면 좋겠어라고, 모든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평가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무엇을 하나 해

리시고는 잠시 주위를 둘러 보시다가 조정순회점검다리로 올라가는 곳에 설치된 철사다리를 띄어보시고 철사다리가 있다고, 저쪽으로 올라가자고 이르시었다.

나라의 국력을 최단기간 안에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울 응지를 안으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밀고 험한 강행군길을 이어나가시고 차디찬 바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들어서시며 조국과 인민의 존엄, 후손만대의 번영을 굳건히 지키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이다.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건물들만들고 아동행복을 일떠 세워주시고도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이같은 성과들은 우리 당의 높은 이상과 포배에 비해서 큰 산속의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하시며 평양종합병원건설에 바치시며 그의 로고는 또 얼마인가.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을 용출도로 찾아내시고 폭염속에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 끊임없이 걸으시는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삼지연시와 한적하였던

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줄 전기강, 보배강의 출렁임소리를 듣고있으시어.

어찌 이뿐이랴.

나라의 국력을 최단기간 안에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울 응지를 안으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밀고 험한 강행군길을 이어나가시고 차디찬 바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들어서시며 조국과 인민의 존엄, 후손만대의 번영을 굳건히 지키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이다.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건물들만들고 아동행복을 일떠 세워주시고도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이같은 성과들은 우리 당의 높은 이상과 포배에 비해서 큰 산속의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하시며 평양종합병원건설에 바치시며 그의 로고는 또 얼마인가.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을 용출도로 찾아내시고 폭염속에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 끊임없이 걸으시는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삼지연시와 한적하였던

인민을 위한 정치

놀아도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제하는 원칙에서 모든것을 따져보고 실리에 맞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의 제품을 놓고도 인민들은 엄격한 검열관, 심사관이라고 강조하신다.

어느때인가 문수물놀이장에 설치한 시계가 한동안 없어 인민들에게 불편을 준 일이 있었는데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단

순하게 보지 않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하는 문수물놀이장의 시계가 벗은것은 인민을 위하여 부복하는 일군들의 심정이 벗은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을

인민을 위한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의 자족으로 이어져있었다.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버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었다. 그의 고결한 인생관이고 인민을 위함이라면 뼈를 깎는 고생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는것이 그의 의지였다.

그이께서는 폭우속을 걸으며 양덕온천분화휴양지의

은 인민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안아볼수록 더욱 가슴에 파고드는것은 지금으로부터 9년전에 하신 그의 뜻깊은 말씀이다.

아버이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일하여도 성취치 않고 하루가 24시간밖에 안되는것이 정말 아파라고, 자신께서는 한생 아버지장군의 혁명방식, 생활방식을 따를것이며 이제부터는 장군님을 대신하여 조국의 첫 새벽문을 열것이라고 하시던 그날의 절절한 말씀이.

그날부터 큰 10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어느 한해,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었다. 비오는 날에도, 눈오는 날에도, 피약별 내려조이는 날에도 그이께서는 인민을 찾아가시었고 인민의 만복을 꿈꾸우시며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하늘의 별도 깊은 잠에 든 이른 새벽 그의 잠수실창가에서 빛나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국가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평양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실질 최상급의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할수 있게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히 완공하는 사업을 다그치게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의 정치는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강그러 다 바치시는 숭고한 사랑이고 헌신이다.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면 인민을 하찮은 정치의 대상, 정치의 수단으로 보는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전의 희생물이 되고있으며 살길을 찾아 피난길에 오르고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어 공화국은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다.

수령결사옹위 정신은 준엄한 나날이나 평화로운 나날이나 변함없이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숭고한 정신세계이고 이 나라의 국풍이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다. 하지만 인민들이 자기 령도자를 자기 신뢰하고 받들면서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해나서고있는 나라는 결코 공화국뿐이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어 존엄하고 행복찬 인민의 어제와 오늘이 있고 후손만대의 밝은 미래도 담보된다는 것을 실생활 체험을 통해 신념으로 간직된 공화국인민이기에 언제나 령도자를 결사옹위해나서고있는것이다.

평범하고 쾌사롭게 흘러가는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속에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것이 빛나고있는가 하는것은

가마포수산업소 안강당선 1278호 부선장이었던 돈덕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1980년대 초 바다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종된 그가 73일만에 이웃나라의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그때 그의 품을 헤쳐본 그 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세찬 풍랑속에 날바다를 표류하면서 수십여일이 지났지만 물 한방울, 습기 한

점 숨배어지지 못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

그가 늘 품고다니던 수첩에는 이런 글말이 적혀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라는 영광스러운 청호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것이 아니다. 그 영광스러운 청호를 빛내이기 위해서라면 내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리라!》

이것은 비단 그 한사람만이 아닌 공화국인민들 누구에게나 간직되어있는 불같은 신념이다.

위급한 순간에 탈출하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지만 끝끝내 비행항로를 바다쪽으로 돌려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길영조비행사!

공화국의 력사에는 험적이 없는 불길속에서 한목숨바쳐 구호나뭇물을 보위한 무재봉의 영웅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파도사나운 망망대해에서, 횡포한 자연의 대대양속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굳건히 보위한 신념의 강자들이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도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지금해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무역집배 《장진강》호 기관장 김명호는 바다에서 뜻하지 않게 배가 침몰되는 위급한 시각 제일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였으며 38시간이나 홀로 표류하면서도 절사의 의지로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보위하여 민사람의 심금을 울리었다.

후날 그는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기어이 조국의 품에 안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품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기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공화국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억척으로 새겨져있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그것은 결코 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투철한 인민관을 지니신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어 공화국인민들은 영원히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맡기고 그 품을 지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다.

이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은 신념으로 강하고 도덕리로 숭고한 공화국인민들의 참다운 정신세계이며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깨뜨릴수 없는 위대한 정신적힘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무역집배 《장진강》호 기관장 김명호 (왼쪽에서 두번째)

최승희선생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에게 잘 알려진 재능있는 민족무용가이다.

그는 일찌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오가며 조선의 우수한 민족무용을 널리 전하였으며 자기의 피라는 노력으로 민족무용예술을 승화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1911년 11월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당시)를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노래도 잘하여 학교에서 모임을 열리던 리레회 독창을 하곤 하였다.

이런 그가 무용을 하게 된 때는 오빠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조선민족이 창조한 무용이라던 아무리 작은것이라도 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다른 나라의것과 대비해보면서 우리것을 잘 살려낼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바탕에는 민족의 넋을 지키고 역 세계 살려나갈 의지와 식민지노예살이를 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깔려있었다.

최승희선생은 1930년 1월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의 후원하에 서울 경성공회당에서 첫 공연의 막을 열었다.

관중은 민족성이 짙고 우아한 그의 첫 공연에 완전히 매혹되었고 우리의 민족무용의 훌륭함과 아름다운 미래에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일제는 최승희선생을 벌려 제놈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샤이소기무용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연하라고 강박하여나섰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그 강요를 물리치고 《최승희무용단》으로 세계 각국에서 순회 공연을 하였고 자기들이 조선의 무용가라는것을 뚜렷하

공화국의 품에 안겨

삶을 꽃피운 재능있는 민족무용가

게, 자랑스럽게 꿰뚫었다.

그는 무대에서 웃음을 머금고 민족무용의 우아한 동작들을 펼쳤지만 수난당하는 민족의 아픈 마음은 감출수 없었다.

나라가 해방되어 그에게도 밝은 앞길의 열리는듯 하였다. 그러나 외세가 다시 남조선을 강점하고 군정통치를 실시하면서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반면에 휩싸여 있던 그는 당시 조선인민당 당수로 명망이 높았던 리운형선생을 찾아 만나게 되었다. 그를 만난 리운형선생은 매우 반가워하면서 시 희망을 꽃피우자면 영명하신

김일성장군의 품을 찾아 공적 활약분부로 들어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해주었다.

사실 최승희선생도 해방전 민족의 태양으로 칭송받고 계신 아버지수령님께에 대한 소문을 자주 들었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대용을 무용작품에 담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었다.

《태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해방을 구하는 사람들》, 《폭풍우를 뚫고》, 《녀성여어, 강하다》, 《미래는 청년의것이다》 등과 같은 무용들이 다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었다.

이러한 때인 주제35(1946)년 7월 어느날 그는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편지에서 그가 지난날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도 굴하

지 않고 민족의 넋과 절개를 지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조선민족무용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세계앞에 시위헌데 대해 잘 알고있다.

하루빨리 북반부로 돌아와 민주주의 민족문화건설에 참가하여 지난날 그처럼 소망하던 민족무용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쓰시었다.

최승희선생은 서둘러 출발 준비를 끝내고 일행과 함께 마포를 거쳐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다.

남포에 도착한 그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자기와 일행을 마중하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에 목이 막혀 있었다.

더욱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자기들 위해 평양에 《최승희무용연구소》로 리용할 건물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학생들이 기숙할 방들이며 사무실과 응접실, 넓은 혼련관...

거기에 가구와 부엌공간까지 일식으로 갖추어져있고 독마다 흰쌀이 가득가득한 아담한 살림집까지 받아안았을 때 그의 감격은 절정에 이르렀다.

1946년 8월 7일부 신문 《정로》에는 당시 최승희선생이 내놓은 심정이 소개되어있다.

《우리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의 령도밑에서 우렁차게 전진하는 북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볼 때 북조선에서 적은 힘이나마 예술활동에 참가하게 된것을 행복으

로 생각한다. ...》

주제35(1946년) 8월 4일 최승희선생은 이처럼 그리던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이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가 사업하고있는 무용연구소를 몸소 찾아주시어 그가 악독한 일제의 통치하에서도 민족무용의 기초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조선민족무용의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완성해나갈때 대해서와 무용가후비를 전방성있게 양성하는 사업을 잘할때 대하여 그 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무용예술을 믿을직하게 띠메고나갈 무용가후비를 양성하는 사업을 전방성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유능한 무용가들을 많이 키워 그들이 인민이 좋아하는 민족무용의 춤동작에 초초하여 우수한 무용작품들을 수많은 창작공헌하게 되면 우리의 무용예술은 더욱 찬란히 발전하게 될것이며 민주주의민족문화도 그만큼 개화발전하게 될것이라고, 나는 선생이 붓과펜의 온갖 회화와 책등을 대담하게 박차고 진정인민들의 품에 안긴것만큼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잘하리라 믿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최승희선생은 아버지수령님의 의지대로 민족무용의 춤동작에 초초하여 우수한 무용작품들을 수많은 창작공헌하게 되면 우리의 무용예술은 더욱 찬란히 발전하게 될것이며 민주주의민족문화도 그만큼 개화발전하게 될것이라고, 나는 선생이 붓과펜의 온갖 회화와 책등을 대담하게 박차고 진정인민들의 품에 안긴것만큼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잘하리라 믿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최승희선생은 아버지수령님의 의지대로 민족무용의 춤동작에 초초하여 우수한 무용작품들을 수많은 창작공헌하게 되면 우리의 무용예술은 더욱 찬란히 발전하게 될것이며 민주주의민족문화도 그만큼 개화발전하게 될것이라고, 나는 선생이 붓과펜의 온갖 회화와 책등을 대담하게 박차고 진정인민들의 품에 안긴것만큼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잘하리라 믿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최승희선생은 아버지수령님의 의지대로 민족무용의 춤동작에 초초하여 우수한 무용작품들을 수많은 창작공헌하게 되면 우리의 무용예술은 더욱 찬란히 발전하게 될것이며 민주주의민족문화도 그만큼 개화발전하게 될것이라고, 나는 선생이 붓과펜의 온갖 회화와 책등을 대담하게 박차고 진정인민들의 품에 안긴것만큼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잘하리라 믿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는 무용연구소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종종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었던

그날의 감격을 자주 이야기 해주면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곤 하였다.

그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직접 창작한 무용을 공연할 때 적지 않은 고위인물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 특이한 춤을 추는 매력있는 무용수로 보았을뿐 친략자에게 짓밟힌 조국, 땅국의 설움에 우는 우리 인민의 원한을 절절하게 호소하려고 나선 자기의 마음을 지향할 리해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 있어서 무용은 예술이 아니라 한갓 구경거리에 불과한것이었다고 눈물에 젖어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해방후 항일의 녀성영웅 김경숙어머님께서도 무용연구소를 5차례나 찾아주시어 최승희선생을 고무격려해주시었다.

1946년 10월 13일 최승희선생은 아버지수령님의 믿음속에 무용예술의 전만사업을 맡아보는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게 되었고 1946년 11월에 진행된 첫 민주선거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으로, 1947년에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으로, 1948년

8월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으로 선거되었다.

해방후 그는 아버지수령님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춤, 새 사회건설에 나선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무용작품창작에 전심전력하여 《농악무》, 《갈춤》, 《봄타령》, 《풍년타령》 등을 무대에 올리였으며 끝없는 고심과 탐구를 기울여 새로 형성된 무용작품을 창작하였다.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의 한 장면

창작하여 싸움에 떨쳐나선 인민들과 군인들을 적극 고무추동한 최승희선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주시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와 그가 양성한 청년배우들을 1951년 제3차 세계청년학생 축제에 참가하도록 하여주시었고 1953년 8월 로모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진행된 제4차 세계청년학생 축제에도 나갈 준비를 잘 하도록 거듭거듭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최승희선생은 《농악무》, 《봄춤》, 《물동이춤》, 《시내가에서》, 《장검무》와 같은 민족성이 짙고 아

름다우며 힘있는 민족무용작품들을 가지고 축전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종목마다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기상을 높여 예술적기교로 남김없이 보여 줌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독무 《장검무》는 축전의 특등상을 수여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44(1955년) 8월 14일 조국해방 10돐 경축공연무대에 올린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를 몸소 보아주시고 지도하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주인공 금이가 너자의 몸으로 왜곡을 물리치기 위한 결연장에 탄원하여나선 장면에서 제일먼저 박수도 보내주시면서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는 왜곡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싸운 선조들의 슬기와 용맹을 잘 보여주시었다고, 그들의 애국주의정신을 잘 반영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는 그후 우리의 민족무용을 종합체계화한 도서 《조선민족무용기본》(1, 2)을 집필하여 내놓아버이수령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리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우리 인민의 자랑할만한 훌륭한 국보를 마련하였다고 하시며 세상에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자기의 무용기분을 가지고있는 나라나 민족은 별로 없을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에 도전하여 유구한 우리 민족무용을 발굴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조국의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예로부터 내려오던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현대민족무용

의 기초를 쌓았다고,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해주시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그는 그후 편이 《조선아동무용기본》(1, 2)도 집필하였고 《무용극대본집》과 《무용극원본장자》를 비롯하여 도서들과 수많은 논문들도 집필하여 신문과 잡지들에 소개함으로써 우리 나라 무용예술발전의 위대한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최승희선생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왜색왜풍의 탁류속에서 시들어가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적인것을 발전시키려는 강렬한 모태집이 문학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번수처럼 솟아오르던 때였다고, 바로 이 시기에 최승희는 조선의 민족무용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그는 민간무용, 승무, 무당춤, 궁중무용, 기생무 등의 무용들을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서 민족적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현대조선민족무용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쓰시었다.

우리 민족무용예술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았을뿐 아니라 무용후비육성에서도 큰 공로를 세운 그는 1969년 8월에 세상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무용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최승희선생을 감회깊이 회고해주곤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최승희선생의 공로를 귀중히 여기시고 영원히 빛내주시기 위하여 그의 유해를 예국역사부에 안치하였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절세위인들의 헌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날로 더욱 개화발전하는 민족무용과 더불어 그는 오늘날도 영생의 언덕위에 서있다.

본사기자